

“편의점에 ‘스마트 셀프존’…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 OK”

은행 지점의 재구성

하나은행 CU마천파크점

인근 500m내 은행·ATM 없어 마련
바이오인증·체크카드 발급 등 가능

“계좌 개설에 10분도 채 안걸려”
직원 통화·화상상담 등도 원활

아파트 단지 앞. 하교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마주치는 곳에 한 편의점이 있다. CU와 하나은행이 결합한 ‘CU×Hana Bank’ 마천파크점이다.

“어서오세요.”

최근 현장을 방문해 문을 여니 계산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주변에는 우산과 컵라면, 각종 과자가 진열돼 있었다.

“은행업무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르바이트생이 가리킨 출입문 왼쪽을 보니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이 있었다.



CU와 하나은행이 결합한 ‘CU×Hana Bank’ 마천파크점.

하나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 편의점에 하나은행의 디지털 셀프 뱅킹 창구를 마련했다. 국내 최초다. 인근 500m내 일반은행과 자동화 기기가 없어 금융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 셀프존에 들어가니 은행 상담원과 화상 상담 연결이 가능한 종합 금

융 기기 스마트 텔러 머신(STM)이 있었다.

STM은 기존 자동화기기(ATM)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위한 신분 확인 및 바이오 인증, 계좌 개설,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 발급, 보안카드(OTP) 발급 등 영업점을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 등이 가능하다.

통장 재발급을 누르고 주민등록증을 확인, 약관 및 주요안내사항에 동의하니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담당직원은 “비대면도 통장을 재발급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첫 재발급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등록을 누르니 상담원과 화상 연결이 됐다. 전문 상담원과의 화상상담으로 상담원의 지시를 따라하자 5분이 채 되지 않아 바이오 인증서비스가 등록됐다. 화상이었지만 상담원과의 소통이 원활했다. 절차도 간편했다. 부스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 큰 소리로 상담원과 통화해도 밖에서는 내부소리가 들리지 않아 보안 걱정도 덜 수 있었다.

같은 장소에 은행업무를 보러온 김모씨(45·남)는 “계좌 개설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처음 접하는 기기라 처음에 조금 버벅거렸지만 상담원이 화상 상담으로 화면을 함께 보며 설명

해 줘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자동화 기기를 사용해본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증만 하면 직원과 통화나 화상상담이 가능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아르바이트생은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찾느냐는 질문에 “한 명이 은행 업무를 보고 나가면 또 다시 한 명이 들어와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며 “설 새없이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은행점포는 줄고 편의점은 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편의점과 협업해 스마트 셀프존을 마련했다. 대형 점포와 다수 창구, 전문 인력을 전제로 했던 기존 은행 지점과 달리, 소형 공간에 필수 금융 기능만을 담은 것이다. 하나은행과 편의점의 협업은 단순한 점포공유를 넘어 은행의 오프라인 전략이 대형점포에서 ‘생활 밀착 채널’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대출금리 산출시 예금자보호보험료 등 반영 금지

내년 6월께 ‘은행법 개정안’ 시행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
50%이하 범위에서 대출금리 반영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자보호보험, 법정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

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 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은행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를, 임직원은 업무집행정리·해임권고 및 면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4500억 규모 생산적 금융 지원

신보·기보에 98억 추가 출연

하나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98억원(보증료지원금 포함) 추가 출연(신보 63억원, 기보 35억원)을 통해 4500억원 규모(신보 2900억원, 기보 1600억원)의 생산적 금융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미래성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하나은행의 이번 해당 특별출연금(보증료지원금 포함)은 12월 중순 신용보증기금과 신규 체결 예정인 ‘유망 신(新)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을 비롯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기존 체결한 협약에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新)성장 동력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손진영 기자

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탄소중립실천 및 지속가능성장(ESG) 기업 ▲기술창업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비율(90%이상) 우대 적용된 보증서 및 보증료 지원을 지원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실질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출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한은, 위기시 기업대출 담보 유동성 공급

내달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신설

한국은행이 은행이 보유한 기업대출을 담보로 위기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새로운 긴급여신 제도를 도입한다. 모바일·SNS 확산으로 단기간 대규모 예금 인출이 가능한 ‘디지털 뱅크런’ 위험에 대비해,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중앙은행 담보로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기관(은행)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한은법 제65조(긴급여신)에 근거해 기존 시장성증권 담보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에 더해 필요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급격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경우 SNS를 통한 불안 확산으로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됐고, 영국법인에서도 하루 만에 30%가 빠져나간 바 있다. 국내 은행의 자산 구조를 보면 총자산 중 대출채권 비중이 69.8%로 시장성증권(18.6%)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위기 시 대출채권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제도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평상시부터 사전수취해 두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 정보를 장기적으로 제출받아 적격요건 심사, 담보 인정가액 산정 등 담보 활용 절차를 미리 상당 부분 완료해 둔다. /김주형 기자 gh471@

우리은행 AI기반 이미지 제작 ‘W-스케치’ 서비스

우리은행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제작 서비스 ‘W-스케치(W-Sketch)’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W-스케치’를 지난해 내부 PoC(개념검증) 단계를 거쳐 실무 활용성을 검증했으며, 올해부터는 우리은행 내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캐릭터·사물·일러스트 등 실제 디자인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리은행 직원들은 명령어 입력만으로 그래픽 디자인 수준의 이미지 결과물을 즉시 생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금융 마스코트 ‘위비(WeBee)’를 활용한 각종 결과물을 실무 콘텐츠에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 가능하다. 마스코트 캐릭터와 디자인 자산을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 AI를 구축한 것은 은행권 최초다. /안승진 기자

역삼센트럴자이 등 총 2594가구 분양

분양 갤러리

셋째주 전국 7개 단지서 청약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59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972가구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파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대들센트럴리버(RC3)’ 등 7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 역삼동(758, 은하수, 760)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을 통해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7층, 4개동, 총 237가구 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역세권 단지이며,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등 도로와 인접해 강남업무지구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인근 도곡초, 역삼중, 진선여중·고가 위치하며, 대치동 학원가와 도보권인 단지다.

모텔하우스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자이에디시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 울산 중구 반구동 ‘태화강센트럴아파트’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